

광주 핸드볼 팬에 희소식...4년 6개월 만에 홈경기 즐긴다

광주도시공사-컬러폴대구 경기 내년 1월 28일 빛고을체육관서 열려
2월까지 4경기 광주서 치러...AI페퍼스 배구 이어 지역팬 관심 집중

광주 핸드볼 팬들이 4년 6개월 만에 광주도시공사 홈경기를 직관할 수 있게 됐다. 팬들은 AI페퍼스 배구와 핸드볼 경기가 광주에서 열리게 돼 겨울 실내스포츠를 만끽할 수 있게 됐다. 2일 광주시체육회와 대한핸드볼협회에 따르면 핸드볼 코리아리그 여자부 광주도시공사와 컬러폴대구의 경기가 내년 1월 28일 빛고을 체육관에서 열린다. 이후 2월까지 모두 4경기가 광주에서 치러진다. 광주 홈경기는 지난 2017년 6월 11일 인천시청전 이래 4년 6개월 만이다. 당시 성적 저조와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개최에 따른 경기장 운용의 어려움 때문에 홈경기를 치르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2020-2021시즌은 무관중 경기로 진행됐다. 하지만 올해는 대한핸드볼협회가 워드 코로나에 따라 전국 도시를 순회하며 경기를 치르기로 결정함에 따라 홈관중을 만나게 됐다. 광주시체육회는 대한핸드볼협회에 홈경기 유치 신청서를 제출해 일정을 잡았다. 오세일 광주도시공사핸드볼 감독과 광주시핸드

볼협회에서 선수들이 체력을 안배할 수 있다는 장점과 팬서비스 차원에서도 홈 경기를 치르자고 제안한 점도 반영됐다. 광주팬 734명이 경기를 직관하게 된다. 이는 빛고을체육관 최대 수용인원(1477명)의 50%로, 대한핸드볼협회에서 규정한 정원이다. 현재 일정대로라면 광주에서는 1월과 2월 모두 4경기가 열린다. 나머지 여자팀들도 광주에서 경기를 치러 팬들에게 볼거리를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체육회 관계자는 "2월 중 빛고을체육관 시설 보강공사가 예정돼 있어 일정에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팀은 올해 목표도 플레이오프 진출로 잡고 훈련하고 있다. 광주도시공사는 오세일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후 팀 창단 이래 최고의 성적을 갱신하고 있다. 에이스 강경민이 골결하고 올해 신인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 송해수까지 영입하면서 전력 보강이 이뤄져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고교 시절부터 성인 대표팀에 선발돼 기량을 인정 받은 송해수는 2018년 세계 여자주니어선수권

대회에서 한국을 3위로 이끄는 등 차세대 국가대표 센터백으로 주목 받았다. 지난 시즌 3위를 차지한 광주도시공사는 지명순서 추첨에서 1순위를 뽑아 송해수를 뽑았다. 감독 부임 이래 광주에서 홈팬들을 처음 만나는 오세일 광주도시공사 감독은 "홈경기가 광주에서 열리지 않아 선수들이 원정일정 때문에 휴식 시간을 갖지 못하는 등 애로가 있었다"면서 "무엇 보다 홈경기에서 팬들을 만난다는 게 큰 의미가 있다. 더 좋은 경기력으로 팬들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도시공사는 홈 개막전에 앞서 내년 1월 6일 오후 5시 정주국민생활관에서 열리는 인천시청과 격돌한다. 한편, 2021-2022 SK핸드볼 코리아리그는 3일 개막한다. 이번 시즌은 3일 충북 정주 국민생활관에서 열리는 충남도청과 상무의 남자부 경기를 시작으로 막을 올리며 남자 4라운드, 여자 3라운드로 2022년 3월까지 정규리그가 진행된다. 이후 플레이오프와 챔피언결정전까지 2022년 3월 31일에 시즌이 이어진다. 다만 여자부는 12월 스페인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 때문에 2022년 1월부터 시즌이 시작되고, 남자부는 2022년 1월 아시아선수권으로 인해 올해 12월 일정을 마친 뒤 2022년 2월에 재개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지난해 열린 SK핸드볼코리아리그 대구전에서 슛을 하고 있는 광주도시공사 강경민. <광주시체육회 제공>

여자프로테니스 투어 중국 대회 모두 보류

“평소이 안전 조사 제대로 안돼”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가 중국 고위 관리에게 성폭행당한 의혹을 제기한 후 행방이 묘연해진 테니스 선수 평소이(중국)의 안전에 대한 조사 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중국에서 열릴 예정이던 대회들의 개최를 모두 보류한다고 2일 발표했다. WTA 투어 스티브 사이먼 대표는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WTA 이사회는 전폭적인 지지로 홍콩을 포함한 중국에서 열리는 모든 대회의 개최를 보류하기로 했다"며 "평소이가 자유롭게 소통하지 못하고, 자신의 성폭행 의혹을 밝히는 것에 압력을 받는 곳에 우리 선수들이 가서 경기하도록 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올해 35세인 평소이는 2013년 뽀플랜드, 2014년 프랑스오픈 테니스 대회 여자 복식 우승자로

2014년 복식 세계 랭킹 1위까지 올랐던 선수다. 지난달 초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장가오리(75) 중국 전 국무원 부총리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폭로했으나 돌연 이 계정이 사라지고 이후로는 평소이의 행방도 묘연해져 국제 사회에 큰 논란이 됐다. 이후 중국 관영매체들을 통해 평소이가 WTA 투어에 보낸 '성폭행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반박 메일과 최근 모습이 담긴 사진, 영상이 차례로 공개됐지만 평소이의 안전에 대한 의혹은 계속 이어졌다. WTA 투어는 평소이와 바흐 위원장의 영상 통화 사실이 공개된 이후로도 "여전히 평소이의 안전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고, 이번엔 "중국은 이 문제를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중국 대회의 개최 보류를 선언했다. 중국은 시즌 최종전인 WTA 파이널스를 2030



중국 테니스 선수 평소이

년까지 개최하게 되어 있으며 이 계약 규모는 10억 달러(약 1조1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에서는 WTA 파이널스 이외에도 10개 안팎의 다른 대회들도 해마다 열리기 때문에 WTA는 중국 대회 개최 보류로 최소한 1조원이 넘는 손실을 감수한 셈이다. /연합뉴스

톰프슨·바르홀름, 세계육상연맹 '올해의 선수'

각각 도쿄올림픽 3관왕·400m 허들 세계신기록

도쿄올림픽 육상 단거리 3관왕 일레인 톰프슨(29·자메이카)과 남자 400m 허들 세계기록을 세운 카르스텐 바르홀름(25·노르웨이)이 2021년 세계육상연맹 선정 '올해의 선수'로 뽑혔다. 세계육상연맹은 2일(한국시간) 모나코에서 시상식을 열고, 2021년 '올해의 선수' 등 주요 수상자에게 트로피를 안겼다. 여자부 최고의 선수는 톰프슨이었다. 톰프슨은 올해 도쿄올림픽 육상 여자 100m, 200m, 400m 계주를 석권했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에서 100m와 200m 정상에 오른 톰프슨은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2회 연속 여자 100m·200m 우승의 금자탑을 쌓았다. 특히 7월 31일 일본 도쿄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린 여자 100m 결선에서는 10초61의 놀라운 레이스를 펼쳐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플로렌스 그리피스 조이너가 작성한 10초62를 0.01초 앞당긴 올림픽 신기록을 세웠다. 톰프슨은 8월 22일 프리폰테인 클래식에서는 10초54에 결승선을 통과해, 세계 기록 보유자(10초49) 그리피스 조이너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10초6의 벽을 깬 여자 스프린터로 기록됐다. 자메이카 선수가 여자부 올해의 선수에 뽑힌 건, 2013년 셸리 앤 프레이저-프라이스 이후 8년 만이다. 바르홀름은 노르웨이 육상 선수 중 처음으로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다. 8월 3일에 치른 도쿄올림픽 남자 400m 허들 결선에서 라이 벤저민(미국)과 세기의 대결을 펼치며 세계 기록을 경신했다. 바르홀름은 자신이 만든 종전 기록 46초70을 무려 0.76초 앞당긴 45초94의 세계신기록을 작성하며 우승했다. 벤저민도 46초17의 세계기록을 세웠지만, 함께 출발한 바르홀름이 먼저 레이스를 끝내 '벤저민의



일레인 톰프슨

카르스텐 바르홀름

세계 기록'은 탄생하자마자 2위 기록이 됐다. 두 차레나 세계 기록을 세우며 남자 400m 허들을 인기 종목으로 만든 바르홀름은 '인생 목표' 중 하나였던 세계육상연맹 선정 올해의 선수상 수상에 성공했다. '라이징 스타'에는 도쿄올림픽 여자 800m와 1600m 계주에서 우승한 애싱 무(19)와 '천재 스프린터'로 불리는 이리언 나이턴(17·이상 미국)이 뽑혔다. 도쿄올림픽 남자 높이뛰기에서 공동 우승한 무타즈 에사 바심(30·카타르)과 장마르코 탐베리(29·이탈리아)는 특별상을 받았다. 도쿄올림픽에서 바심과 탐베리는 2m37을 1차 시기에서 성공한 뒤, 2m39에 도전했지만 3차 시기까지 모두 실패했다. 둘은 골장 승부 격인 '점프 오프' 대신 '금메달 공동 수상'을 택하며 진하게 포옹했다. 세계육상연맹은 "바심과 탐베리가 선의 경쟁에 이어 동료애를 보여줬다"며 특별상 수상자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그린 파악은 '눈으로만'...경사 측정장비 사용 금지

야디지북 활용도 제한

내년부터 그린 경사 측정 장비를 들고 다니며 메모하는 선수나 캐디의 모습은 볼 수 없게 된다. 전문 업체가 제공하는 그린 정보 역시 경기 중에는 활용할 수 없다. 세계 골프 규칙을 관장하는 R&A와 미국골프협회(USGA)는 그린 파악에 측정 장비 사용 금지를 뼈대로 한 새로운 규칙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한국시간) 공동 발표했다. 이 규칙은 코스 정보를 담은 야디지북에 선수나 캐디가 경험과 관찰로 얻은 내용은 적어넣고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기계 등 장비를 통해 파악한 정보는 아예 적어넣을 수 없다. 오로지 선수와 캐디의 눈과 감각에만 의존해

경기하라는 뜻이다. 새 규칙은 모델로컬(MRL)이다. 모든 골프 경기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다. 각각 투어나 협회가 알아서 채택하라는 얘기다. 하지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와 DP 월드 투어(옛 유러피안프로골프투어),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는 이미 한 달 전에 선수들에게 이 규칙 시행을 예고했고 당장 내년 1월 대회부터 적용한다.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투어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는 아직 내년 시즌을 시작하려면 시간이 있어 다음 달쯤 규칙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KPGA투어 최진화 경기위원장은 "해외 투어가 채택하는 규칙은 우리 선수들의 국제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따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규칙이 적용되면 '필드의 과학자'로 불리는 브라이언 디샘보(미국)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디샘보는 온갖 과학 장비를 이용해 코스와 그린을 파악해서 경기 때 꼼꼼하게 활용한다. 캐디 업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눈과 느낌만으로도 그린을 잘 읽어내는 재능을 지닌 캐디가 몸값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진화 위원장은 "R&A와 USGA는 골프 경기에서 장비와 과학 기술이 개입하는 추세에 제동을 걸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드라이버 길이를 제한해서 보트 공과 클럽의 성능을 가능하면 제한하고 싶어한다. 이번 그린 정보 제한 역시 과학 기술보다는 사람의 능력만으로 경쟁하라는 취지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유체이탈자, 고스트버스터즈 라이즈
2관	고스트버스터즈 라이즈
3관	유체이탈자, 연애 빠진 로맨스
4관	고스트버스터즈 라이즈, 연애 빠진 로맨스
5관	엔칸토: 마법의 세계, 심계
6관	유체이탈자, 장르만 로맨스
9관	유체이탈자, 라스트 나잇 인 쇼호, 베네딕타, 이터널스
7관 씨네클	고스트버스터즈 라이즈, 라스트 나잇 인 쇼호, 태일이, 장르만 로맨스
8관 씨네클	라스트 나잇 인 쇼호, 동 이터널스, 팬텀: 더 뮤지컬 라이브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특별기획공연
바리톤 김기훈 독창회
일시 : 2021.12.13.(월)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

GAC기획공연 포커스
어린이 무용 <루돌프>
일시 : 2021.12.19.(일)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

즐거움
문화 산책

12시간마다
유체이탈자